

전파통신 기술기준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이영환 장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yhwan@etri.re.kr dwjang@etri.re.kr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Procedure of Radiocommunication Technical Specifications

Lee Young Hwan Jang Dong Won
 ETRI ETRI

요약

전파통신 기술기준은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표준규격으로 강제성을 가지면서 전파이용질서의 확립과 공공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국의 기술기준 운영과 제·개정 절차를 살펴보고 국내 기술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기술기준 운영과 제·개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I. 서론

전파통신 분야는 무선 서비스의 사업자간의 상호간섭으로 인한 통화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파간섭을 방지하는 무선국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무선국의 기술적 조건이 국제 표준의 흐름과 국내 전파환경의 바탕 위에서 적절한 기준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간의 전파간섭과 국내 무선국간에 혼신을 발생시키므로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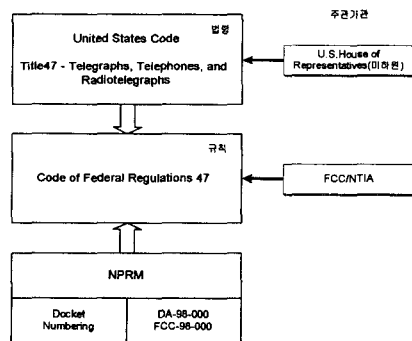
기술기준은 통신망에 맞게 토착성을 가지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통신장비처럼 외국의 것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기준은 전 세계적인 흐름 및 통신망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국내 통신망 환경 및 통신정책에 입각한 기술기준이 개발됨에 따라 국내 통신 산업의 보호 및 원활한 운용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매우 중요성을 지니는 무선통신 기술기준에 대해 이해를 돕고 그 효율적인 처리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외국의 기술기준 제·개정 체계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국내 기술기준의 운영현황을 정리하여 기술기준 체계와의 상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기본적인 처리절차를 나타내어 국내 기술기준 업무시 제·개정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II. 해외국의 기술기준 운영현황

가. 미국

미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전파관리는 통신법(ACT)에 근거한 FCC와 NTIA의 이중적 상호보완 구조로 되어 있으며 NTIA는 민간 및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담당하고, FCC는 주로 민간용 주파수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개정은 FCC에서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방통신규칙(CFR47)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기준 법령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미국의 기술기준 법령 체계

미국의 기술기준 제·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초기 제안) : 사업자, FCC 및 제조업체에서 초기 제안하고 FCC 담당 부서에서 요청권/청원서 목록 공고